

학봉상 제정 취지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이셨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소중한 뜻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상입니다. 서울법대는,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삶을 추구하면서 차별없는 사회, 기회의 균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 학봉 선생의 뜻을 받들어 학봉상을 창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경쟁과 과도한 성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연관된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고,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의 문제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해 있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행복한 사회’로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책상 위의 미사여구나 독선적인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점이나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뚜렷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들 자신마저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단서,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매년 한 개씩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할 지혜를 결집할 터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터전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